나 대통령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낡 >

뉴스홈 | 최신기사

협상은 협상·준비는 준비...MLB 합동 캠프로 몰려드는 선수들

송고시간 | 2022-03-08 15:01





















초대형 최첨단 시설 구비한 MLB 선수 합동 캠프 [벨 뱅크 파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가 언제 개막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새 단체협약 합의를 둘러싸고 MLB 30개 구단과 선수노조(MLBPA)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급기야 구단을 대변하는 MLB 사무국은 8일(한국시간) 선수노조에 정규리그 162경기를 치르고 급여를 온전히 다 받으 려면 9일까지 단체협약에 합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애초 구단들은 스스로 협상 만료일로 정한 이달 2일까지 합의에 실패하자 다음달 1일 개막하는 정규리그 때 팀당 6경 기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다가 협상 간극이 좁혀지자 다시 162경기를 다 치를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면서 9일까지 결론을 내라고 다시 선 수노조를 압박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협상과 별개로 시즌이 다가오자 홀로 훈련하던 선수들이 MLBPA가 마련한 합동 훈련 캠프'로 발걸음을 옮겨 개막을 철저 히 대비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스포츠전문 온라인매체 디애슬레틱이 8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수십 명의 선수가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벨 뱅크 파크에 모여 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MLB의 직장폐쇄로 선수들이 각 구단의 스프링캠프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MLBPA는 최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첨단 시설을 갖춘 벨 뱅크 파크를 팀에 상관없이 빅리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합동 훈련장으로 꾸렸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벨 뱅크 파크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스포츠·위락 시설이다. 야구·소프트볼 야구장만 8면을 갖췄고, 축구장과 라크로스 필드 35개, 19개 농구 코트를 지닌 초대형 시설이다.

현재 선수 40명 이상이 이곳에서 타격, 투구,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 중이다. 선수들은 일정에 맞춰 훈련도 하면서 다 른 팀 유명 동료와 어울려 함께 시즌을 준비하는 이색 경험도 한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투타 겸업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합류하는 이번 주엔 합동 캠프 참가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디애슬레틱은 전망했다.

참가자가 늘면 팀을 구성해 연습 경기도 가능하다.

선수들은 훈련할 때 소속팀 유니폼 대신 회색 바탕의 MLBPA 로고와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한다.

MLBPA는 애리조나주에서 15개 팀, 플로리다주에서 15개 팀이 스프링캠프를 차리는 점을 고려해 플로리다주에도 벨 뱅크 파크와 비슷한 곳을 물색해 선수들의 훈련을 도울 예정이다.

cany9900@yna.co.kr



MLB 사무국 "9일까지 노사 합의안 나와야 162경기 정상 진행" MLB, 투구 시간수비 시프트 제한 베이스 크기 확대 도입 준비(종합) 5일 만에 재개된 MLB 노사협상도 '교착 상태'...8일 다시 협상 MLB 노사, 7일 협상 재개...PS 진출팀 안건으로 재협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8 15:01 송고

#MLB #선수노조 #합동 #캠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결국 우크라에

컨 등 후보군"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현장 영상 →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9 찰에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7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_ __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토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